한국의 동쪽에서 유럽의 동쪽으로

ㅇ 이름 : 이다혜
ㅇ 근무기구 및 부서 : 유엔대학교 (UNU-FLORES) Office of Director
ㅇ 직위/직급 : 인턴 (Intern)
ㅇ 지원 경로 : 환경부 국제환경전문가양성프로그램(International Environment Expert Training Program - IEETP) 11기 수료생
ㅇ 근무 기간 : 2019.11.01. - 2020.04.30.

□ 대학졸업 대신에 해외인턴

나는 토종 한국인이다. 서울에서 4시간 버스를 타야 도착하는 한국의 극동에 위치한 작은 항구도시에서 학부시절 4년을 보냈다. 인구 50만명도 채 거주하지 않는 한적한 바닷가와 멀지 않은 학교 캠퍼스에서 나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꿈을 꾸었다. 지금이야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모든 것이 줌(zoom)모임과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거리상 제약을 뛰어넘기 쉽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기회가 집약된 대한민국에서 지방의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큰 어려움을 동반한다.

초등학교 시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님의 자서전을 읽고 국제기구에 관심이 생긴 이후로 줄곧 인권,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여러 관련분야에 관심은 있었으나 실제로 문을 두드린 적은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국제기구 방문이나 관련 인턴십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보통의 유엔인턴십이 무급이거나 현저히 낮을 뿐더러 혼자서 모든 것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늘 지원하기를 망설였다. 그러나 우연히 환경공단에서 주최하는 국제환경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 찾아 수료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인턴십을 환경강국으로 잘 알려진 독일에 지원하게 되었다. 인턴십 파견 이전까지 해외거주를 공식적으로 해 본 적이 없었기에 인턴십에 선발되고 나서 너무나도 설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환경공단(K-eco)에서 제공된 4주간의 교육을 듣고 나니 환경과학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나에게는 큰 지식적인 도움이 되었고, 동시에 동기부여도 되었다. 무엇보다도 좋은 동기들을 만나 환경이라는 같은 분모를 두고 이야기할 누군가가 생겼다는 것이 좋았다.

□ Water-Soil-Energy Nexus

사실 “UNU-FLORES” 라는 기구는 지원하기 이전까지는 이름도 생소한 작은 기구라고 생각했다.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로 지원할지 큰 도시에 위치한 본부로 지원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일을 조금 더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기에 지역사무소를 결국 선택하게 되었다. UNU-FLORES는 유엔대학교(UN University)의 다양한 기관 중 환경을 주제로 설립된 기구이며, 과학과 정책의 차이를 좁히는 목적으로 물, 토양, 에너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다. “대학교“라고 불리는 만큼 관련 연구를 진행할 박사생들도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연구를 컨퍼런스, 출간물을 통해

나누는 국제적인 씽크탱크(thinktank)이다. 구동독 아름다운 도시, 드레스덴(Dresden)에 위치해 있으며 드레스덴 공대와 파트너십을 맺어 긴밀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환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 흙, 쓰레기, 에너지 관련 이슈들에 대해 조금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내 전공은 법이지만 최근 일어난 기후변화와 2017년 학교에서 겪었던 끔찍한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원인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에너지, 물관리에 대해 알고 싶었기 때문에 UNU-FLROES에 지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발탁되어 진행했던 주요 업무는 바로 직원들의 성과관리체계(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PMS)과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s)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구와 이외 다른 행정적인 업무였다. 그래서 인턴십을 진행하면서도 과학이나 정책과 관련된 리서치 인턴업무에서는 제외되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 유엔도 하나의 회사같군요!

UN인턴은 사실 장기간 체류가 불가능하다. 규정상 모든 인턴의 체류는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만약 더 오래 머문다면 컨설턴트로 재계약을 한다거나 시간을 두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 내가 파견되어 일을 시작할 당시에 우리 기구에는 인턴은 총 다섯 뿐이었고 기관장(Director)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막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과도기에 있었다. 내가 선발된 Office of Director부서는 기관장 직속 부서로 사실상 회사의 부서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대학교 체제 아래에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효율을 늘리고 자원을 절약하며, 신뢰와 형평을 기반으로 한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내가 소속된 부서에서는 주로 기관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였고, 대외적인 협력체계를 볼 수 있었다. 메인으로 주어진 업무 외로도 내가 맡았던 업무로는 일반 회사에서 할 법한 자산관리(asset management)를 위한 물품목록(inventory)작성, 새로운 기자재 구입 시 세팅 및 등록, 매월 열리는 넥서스 세미나(Nexus Seminar) 준비, 주소록 관리, 관심주제에 관한 레포트 작성 등이 있었다. 머무는 동안 나에게는 두명의 상사가 존재했으며 그 중 가장 자주 보며 인턴십을 이끌었던 상사가 기관 내 유일한 인사담당자였기에 경영학입문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에게 국제기구의 “인사관리”라는 분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번 인턴십을 통해 채용프로세스, 유엔기구의 신규인사교육과정(onboarding), 직원들에 대한 보상체계 등에 대해 배우고 더 나은 체계로 만들기 위한 고민을 리서치하며 할 수 있었다.

□ 유럽에서 만난 환경공단(K-eco)

11월 중순 즘 상사는 나에게 환경공단 관계자 분들이 오시므로 통역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기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방문하는 목적이므로 상호적인 통역과 회의진행이 중요한 만큼 조금 긴장되었다. 그러나 익숙한 기관 관계자 분들이 오신다는 것이 든든하기도 했고 앞으로 어떠한 협력이 이루어질지가 궁금했다. 막상 회의

가 시작되고 나니, 두 기관의 학술적 교류와 협력의 증진, 구체적인 분야에 관한 내용이 오고갔다. 놀라운 점은 한국의 물처리 기술이나 쓰레기 처리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점이었다. 한국 사람으로 자랑스러웠고 두 기관을 이어줄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서 기뻤다. 더 나아가 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관방문 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술과 경험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UNU-FLORES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그러한 기술을 나눈다면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한국의 청년들, 관련 전문가들이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이러한 기관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유기적인 관계 속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율적으로 이루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다.

□ 문화적 다양성

내가 좋아하는 오랜 우화인 <도시쥐와 시골쥐>를 보면 두 마리의 쥐가 서로 다른 곳에 살며 각자가 살고 있는 장소와 생활양식을 소개해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내가 경험한 삶의 양식과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를 보여주는 우화이다. 하나의 웃픈 에피소드를 설명한다면, 인턴십을 시작하며 사석에서 두 명의 상사들과 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가족과 동행한 상사가 동성의 어른과 동행하여 혼란스러웠다. 동생은 아니었으니 당연히 동성부부라는 생각보다는 나이가 많은 자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저녁을 먹다보니 동성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금 당황스러웠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쩌면 내가 살던 문화와는 조금 다른 문화적 다양성까지도 포용하고 일해야 한다는 점이 피부로 와닿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최대한 선입견과 나의 경험적 지식이 동반되지 않은 채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독일 지역에서 현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유럽권 혹은 그 외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 학계 관계자, 서비스직 근무자들을 만나면서 한국과는 다른 문화적 다양성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약속을 잡고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자(兩者)간의 합의와 명확한 소통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는 사실 싫어도 싫다고 말할 수 없고 직장 상사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눈치를 보는 문화가 내재하는데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은 완벽히 하겠다.” 그리고 “인턴은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배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실수에 포용적이면서도 자주적인 결정을 지향하는 업무문화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파견 이전에도 북미, 아랍, 몽골 등 다양한 나라에 갔었고 노출이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인턴십을 통해 또다른 문화적 이해력을 길러낼 수 있었다.

□ COVID-19, 조기귀국 그리고 재택근무

2020년 3월 초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3월 9일부터는 우리 기관도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나 다른 국가보다 사정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네덜란드와 서부 독일지역에 확진자 수가 급

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비행기가 취소되고 공항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드레스덴(Dresden)은 워낙 극우주의적 성향을 지닌 독일을 위한 대안당(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이 매주 시위를 할 정도로 반 외국인, 반 난민 정서가 강한 지역이었고 이미 반(反)아시안적 정서가 유럽에 퍼지고 있어서 결국 나는 울며 겨자먹기로 조기귀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보지 못하고 귀국한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컸다. 비행기도 출국하는 주 수요일에 확정지어 월요일에 출국했으니, 매우 급하게 짐을 싸고, 택배로 붙이고, 작별인사도 제대로 못했음을 요약해준다. 기관장님과 상사의 배려로 4월 한 달동안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인턴십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판데믹(pandemic)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뉴스로 전해 들었지만 독일에서는 자가격리가 전부였기에 체감이 잘 안되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들어서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 모습을 나니 한국의 방역에 대한 안도감이 들었다.

한국에 오고서는 6시간의 시차를 극복하고 믿어준 만큼 더욱 성실히 일하기 위해 밤낮을 바꾸어 생활했다. 오후6시가 점심시간이었고 당시에 하던 레포트 마무리를 위해 일하다보니 시차적응을 하기까지 약 3개월이 걸린 것으로 기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감사했고 종종 화상모임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 감사했다. 원래 UNU-FLORES는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하는 Dresden Nexus Conference를 6월초 기획중이었는데 사실상 기획한대로 오프라인으로는 진행되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양질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거리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얻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았으나 컨퍼런스의 생생한 감동, 현장방문과 관련한 여러 활동이 제약적이란 점이 아쉬웠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바뀌게 될 재택문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노동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기관의 모습을 보며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가치를 표명하고 그 노선을 추구한다고 생각되었다.

□ 인턴십 후 달라진 나

인턴십은 짧았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을 하리라 그 누가 예상했을까. 그러나 6개월은 UNU-FLORES 출간자료를 통해, 기관 내 개최된 세미나와 특강, 오픈채용 중 이루어진 강의를 통해 알게 된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이 연구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충분했다. 인턴십이 끝난 이후로도 나는 내가 연구하며 부족하다고 느꼈던 경영관련 성과관리체계(PMS), 인적자원(HR)관리에 대해 책을 사서 읽고 공부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서는 독일의 환경정책, 폐기물관리, 한국 환경부의 새로운 정책, 유럽연합이 2019년 12월에 내세운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심지어 더 나아가 독일 내 극우주의에 대해 찾아보고 새롭게 배우고 부딪히기 시작했다.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사후 공부를 바탕으로 누구나 환경챌린지를 실천하기 좋은 환경워크북을 직접 기획하고 펀딩을 받아 제작하여 초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챌린지 실천을 알리고, 참여했다. 8월중에는 United Nations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OSD)에서 주최하는 환경관련 포럼에 참가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임과 동시에 코로나19시대에 친환경 포장용기 혹 일회용기 덜 사용하기에 대한 문화를 고안해내기도 했다. 더 나아가 국립외교원 외교워크샵 모의UN, 모의G20, 모의유럽연합대회(2020 Model EU)등에 환경을 주제로 나아가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

□ 대한민국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

유럽에 살며 사실상 방문한 국가는 내가 거주한 독일 드레스덴과 통일30주년을 맞아 방문했던 베를린, 짧은 여행으로 간 프라하와 런던 뿐이었지만 인턴십 중에는 내가 흡수한 충격과 지식은 정말 짜릿했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처럼,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이전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환경에 대한 전반적이고 유기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사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은 충분히 국제무대에 설 가능성을 지녔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직을 상당히 많이 선호한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우리의 교육수준, 국제적인 감각, 이상도 높아졌지만 한국사회에 만연하는 치열한 경쟁, 그 속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비교의식, 불안정한 고용 등이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공무원 시험으로 내몰리는 것 같다.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는다. 어떤 이에게는 조금 일찍 오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더디게 오기도 한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기회”를 나타낸 그리스의 예술작품에 의하면 기회의 신 카이로스(Kairos)는 앞머리에는 잡을 곳이 많지만 뒷머리에는 잡을 곳이 거의 없는 모양으로 묘사된다. 이와 같이 국제기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조금 더 구비되어 있다면 그 기회는 바로 낚아챌 수 있다. 앞으로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준비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하길 소망한다. 인턴생활을 하고 나니 나의 부족한 부분,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졌는데 나 또한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고 더욱 구비되어 UN의 다른 환경관련 기구에 정규직원으로 지원해보고 싶다. 더 나아가 특별히 나의 전공분야인 법적인 소양을 살려 환경관련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는 일을 진행해보고 싶다. 인턴은 짧았지만 그 짜릿한 맛을 맛본 사람이 그 다음의 컨설턴트로, P직급의 직원으로, 정규직으로 또는 UNV나 JPO로 지원하리라 생각된다. 내가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기를 읽고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 의자에 앉은 모든 이들을 격려하고 싶다. /끝/

*** 사진자료 ***

<table>
<tr><td> </td><td> </td></tr>
<tr><td>인턴십 첫 날에 Director's Office에서</td><td>환경공단과 UNU-FLORES의 회의 중 통역하는 모습</td></tr>
<tr><td> </td><td> </td></tr>
<tr><td>세미나와 강의가 열리던 사무실 아래층에서</td><td>도서관 출간물을 정리하는 모습</td></tr>
</table>